

經濟協力の 多邊化와 韓國經濟*

高 南 旭**

目	次
一. 序 論	
二. 世界經濟의 環境變化	
1. 美國經濟構造變化의 特徵	3. 韓·日間 貿易構造의 特性
2. 日本經濟構造變化의 特徵	4. 韓·中間 貿易構造의 特性
3. 中國 經濟改革의 背景과 特徵	四. 經濟協力多邊化의 課題와 方案
4. 共產圈 經濟의 開放化	1. 美國과 日本과의 經濟協力の 자세 개선
三. 美·日·中國의 對韓貿易協力	2. 韓·中國間 經濟協力の 方案
1. 韓·美·日 三國의 雙務的 貿易收支	3. 東歐圈 社會主義諸國과의 經濟協力
2. 韓·美間 貿易構造의 特性	五. 結 論

I. 序 論

한국경제는 1960년대부터 對外指向의 수출주도정책으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최근에 國際收支 黑字를 시현하여 自立成長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만 先進諸國의 강력

* 이 論文은 1987年度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하여 研究되었음.

** 經商大學 經濟學科 教授

한 保護貿易主義와 資源民族主義의 대두,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원화절상, 통상마찰, 국내시장 개방압력 등으로 인하여 국내경제의 불안은 물론 장기적인 경제성장 예측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對外經濟政策은 종래의 편중된 美·日 중심의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편 80년 이후 막대한 시장잠재력과 자원공급선으로서의 잠재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유망한 經濟協力 동반자로 새롭게 등장한 EC, 中國, 소련, 아세안을 포함하는 제 3세계 시장과 東歐圈社會主義經濟와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신시장개척등의 市場多邊化 노력에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을 이룩해 나가는 데에는 정치·외교·문화 등 비경제적 측면에서의 방안과 함께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경제협력이란 외자도입 및 合作投資와 같은 국제간의 資本이동을 전제로한 방법과 貿易과 같이 재화의 이동, 그리고 技術協力과 같이 用役이나 人力의 교류를 전제로 하는 것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제협력이란 국제적인 재화나 용역의 移轉을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협력의 方法은 民間主導에 의하여 多邊化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체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本 研究에서는 국내외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면서 이제까지 여러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어온 경제협력 다변화의 방안을 기문헌과 자료에 의하여 종합·정리하고자 한다. 本稿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 2장에서 最近의 世界經濟동향의 분석을 위하여 미국·일본의 경제구조 변화의 특성과 중국의 경제계획, 또 東歐圈社會主義國家들의 경제改革과 對外開放化 추세를 검토한다. 제 3장에서는 한국의 對美·對日·對中國간의 무역구조의 특성을 分析하였고, 美國과 日本을 중점적으로 다룬 것은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긴밀하기 때문이었다. 제 4장에서 경제협력의 다변화 방안을 종합·정리하기 위하여 對美·日과의 경제협력의 자세를 개선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특히 韓·中國간에 경제협력 방안을 무역협력, 기술협력 및 투자협력 등으로 분류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또 東歐圈社會主義諸國과의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축성을 시사하였다. 마지막장에서 본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二. 世界經濟의 環境變化

1. 美國經濟構造變化의 特徵

(1) 美國의 國際收支逆調 및 財政赤字 擴大

미국의 國際收支는 1980 년대에 접어들면서 그 적자폭은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表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0 년대 후반부터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기 시작하여 1986 년중 통관기준으로 본 무역적자는 1,698 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1970 년대 후반의 소폭적자로부터 1980 년대에는 GNP의 3 %를 넘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한편 미국의 對外純資産 역시 1985 년에는 -1,074 억 달러를 기록하여 純債務國으로 전락되었다.

미국의 財政赤字도 1980 년대에 접어들면서 크게 늘어났다. <表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 ~ 86 년까지 年平均 세입은 7.0 % 증가한 데 비하여 세출은 9.1 %로 증가하여 재정적자의 對 GNP비율은 1976 ~ 80 년의 年平均 2.8 %에서 1986 년에는 5.3 %로 상승하였다.

<表 2-1> 美國의 國際收支 推移 (단위 : 억달러, %)

	71~75 年平均	76~80 年平均	81~86 年平均	83	84	85	86
輸 出	739	1,573	2,153	2,018	2,119	2,144	2,173
(增 減 率)	(21.4)	(15.7)	(-0.1)	(-5.5)	(8.7)	(-2.2)	(2.0)
輸 入	748	1,828	2,906	2,689	3,324	3,389	3,781
(增 減 率)	(20.7)	(19.5)	(7.5)	(5.9)	(26.4)	(6.0)	(7.0)
貿易收支*	-9	-255	-753	-671	-1,205	-1,245	-1,698
經常收支	40	-50	-690	-466	-1,065	-1,177	-1,406
(對GNP比率)	(0.3)	(-0.2)	(-1.9)	(-1.4)	(-2.9)	(-2.9)	(-3.3)
對外純資産**	742	1,060	..	885	44	-1,074	..

* 通關基準 ** 期末基準

資料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各年度

〈表 2-2〉

美國의 財政收支* 推移

(단위 : 억달러, %)

	71~75 年平均	76~80 年平均	81~86 年平均	83	84	85	86
歲入 (增減率)	2,335 (9.2)	4,067 (13.2)	6,646 (7.0)	6,006 (-2.8)	6,665 (11.0)	7,341 (10.1)	7,681 (4.8)
歲出 (增減率)	2,577 (11.3)	4,668 (12.3)	8,367 (9.1)	8,083 (8.4)	8,518 (5.4)	9,463 (11.1)	9,898 (4.6)
財政收支	-242	-601	-1,722	-2,078	-1,853	-2,123	-2,207
財政赤字의 對 GNP 比率	1.9	2.8	4.8	6.3	5.0	5.4	5.3

*會計年度 基準 (10月 1日~翌年 9월 30日), () 內는 前年對比 增減率

資料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各年度

1978 - 86년 기간동안에 일어난 연방정부세출내역의 구조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¹⁾

첫째, 국방비지출은 GNP의 4.8%에서 6.6%로 증대되었다.

둘째, 사회복지비 지출은 극히 제한된 영역에 한하여 0.5% 증가에 그쳤다.

셋째, 의료부문의 세출증가는 GNP의 0.7%에 불과하였다.

넷째, 연방정부의 財政赤字 증대로 인한 純利子부담액의 증분은 GNP의 1.7%에 달하였다.

다섯째, 여타 부문에 대한 연방정부 재정의 감소분은 GNP의 1.8%에 달하였다.

이상에서 본 80년대 미국의 재정적자는 미국경제의 巨視的 現象 가운데 가장 특이한 요소로 등장하였으며, 국방비의 대폭적 증액으로 나타난 세출증대는 미국제조업의 국제경쟁력향상과는 무관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 주목을 끈다.

(2) 貿易赤字의 巨視經濟的 性格

① 미국 國內需要의 超過伸張

미국의 국제수지 악화요인으로 교역상대국과 관련하여 볼 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2년을 기점으로 1984년 중반기까지 國內수요의 신장률이 일본 등구라파 4개국에 비교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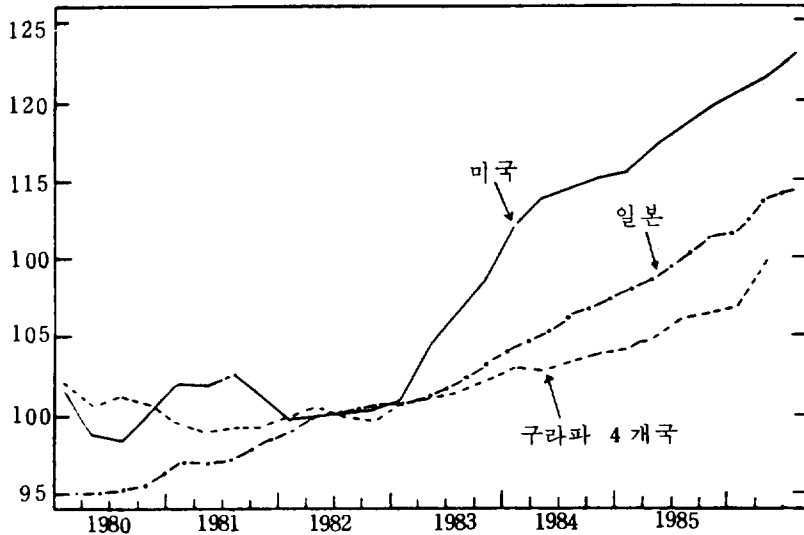
1) Washington D.C.,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1987, p.69.

여 급격히 신장하였다.

198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국내수요신장률의 급격한 증가가 초래한 누적효과로 인하여 계속 국내수요가 국내공급을 초과하게 되고 그 차액을 輸入에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국내수요증가율이 미국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低調하여 세계경제의 低成長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의 수출상품에 대한 需要不振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 그림 2-1 〉 主要先進國의 實質國內需要推移

Index, 1982 - 100



註: 구라파 4 개국은 佛, 伊, 英, 西獨을 지칭하며 GNP를 加重值로 指數化된 것임.
資料: 美國, 商務省

미국과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국내수요증가율을 〈 表 2-3 〉에서 볼 때 미국의 국내수요증가율이 일본, 서독, 이태리 등의 총체적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70~85년에 이르는 동안 실질 GNP 성장률은 언제나 실질국내수요증가율을 초과하였다. 일본의 경우 실질 국내수요증가율에 비교한 실질 GNP 성장률의 초과

분은 수출주도성장에 의하여 가능한 것이었다. 1982~85년 기간동안 일본의 실질국내소비증가는 연평균 3.1%에 그쳤으나 실질 GNP는 연평균 4.3%를 기록하여 수출주도 특히 對美수출확대를 통하여 고율성장을 달성하였다고는 볼 수 있다.

〈表 2-3〉 주요공업국의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국내소비증가율, 1970~86

(연평균, %)

	1970~1980		1980~1985		1982~1985		1985Ⅲ~1986Ⅲ	
	실질국내 소비 ¹⁾	실질 GNP ²⁾	실질국내 소비 ¹⁾	실질 GNP ²⁾	실질국내 소비 ¹⁾	실질 GNP ²⁾	실질국내 소비 ¹⁾	실질 GNP ²⁾
미 국	2.5	2.8	3.4	2.4	5.6	4.2	3.6	2.3
캐 나 다	4.9	4.6	2.1	2.5	4.2	4.2	3.3	3.5
일 본	4.2	4.7	2.8	3.9	3.1	4.3	3.8	2.3
불 란 서	3.7	3.6	1.2	1.2	0.8	1.2	n. a.	n.a.
서 독	2.7	2.7	0.2	1.3	1.9	2.4	3.6	2.3
이 태 리	2.9	3.1	0.4	0.9	1.5	1.7	4.5	3.0
영 국	1.7	1.9	1.9	1.9	3.1	3.1	3.3	2.0

註: 1) 개인소비지출+총민간국내투자+정부의 재화 및 용역구매

2) 캐나다, 불란서, 영국, 이태리는 실질 GDP 표시

資料: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country sources

일본의 경우 국내수요증가를 억제키 위한 각종 規制나 구조적 경직성 속에서 선진공업국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은 일본경제가 수출지향으로 경제운용을 유도하여 갔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시행된 국내수요억제를 위한 구조적 경직성들의 대표적 장치는 住宅買入과 관련 過大契約金 “모게지” 제도, 消費者信用制度의 미비로 인한 내구소비재의 판매부진, 內需用生産에 대한 투자유인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② 달러貨 價値의 變動

1973년 變動換率制로 이행한 이후 下落勢를 지속하여 온 달러貨 시세는 미국의 財政赤字 확대 및 高金利 그리고 경기회복시책에 의하여 크게 강세로 발전되었다. 그러나 〈表 2-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의 財政赤字가 점차 확대되고 1984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자 달러貨 시세는 1985년 2월말부터 약세로 반전되고 특히 1985년 9월 G5 財務相 合意 이후 急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달러貨의 主要 交易相對國 통화에 대한 가치하락은 미국의 貿易收支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1985년 9월 G5會同이라 1987년말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엔貨에 대한 달러貨의 가치는 50% 정도나 평가하락되었지만 미국의 국제수지는 개선되지 않았다.

〈表 2-4〉 主要國通貨의 對美달러 換率推移¹⁾

	1970	1980	1985.2	1986	1987
엔/달러	357.7	194.6	263.1	160.1	121.98
마르크/달러	3.648	1.828	3.475	1.941	1.579
달러貨實效換率指數 ²⁾	120.6	88.5	158.4	106.5	n. a.

註: 1) 各期末基準

2) G-10 통화 및 스위스프랑貨에 대한 美달러貨의 加重 平均換率指數 (1973년 3월 = 100) 로서 加重值는 G-10 각국의 세계교역량에 대한 비중을 基準

資料: 美國, FRB Bulletin 각호

評價切下가 수입감소 및 수출증대에 기여한다는 「J-커브」효과가 미국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달러貨의 평가절하가 미국의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일부 경제학자들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平價切下로 인한 수입물가의 조정은 2년 혹은 그 이상의 時差가 소요된다는 사실이다. 1980~84년의 기간동안 미국의 달러貨가 강세를 보이는 동안 많은 외국 수출업자들은 이윤 마진 폭을 충분히 올려놓아 달러貨의 약세가 상당기간 진행되더라도 그들은 미국시장에서 占有率을 유지할 수 있는 여유를 지닐 수 있었다.

둘째, 미국의 몇개 주요 교역대상국들의 통화는 달러貨에 대하여 충분히 절상되지 않았다. 캐나다, 한국, 대만으로부터의 총수입은 西歐나 日本으로부터의 수입보다 그 규모가 컸었다. 그러나 86년말까지 캐나다와 대만에 대하여 달러貨는 겨우 7% 밖에 절하되지 않았으며 한국의 원貨에 대하여는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평가절상되었다.

③ 美國의 貿易赤字 해소와 多者間 政策協助

국제수지 적자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미국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相互依存體制로 다국화되어 가고 있는 국제경제구조하에서 각국간의 政策協助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무역적자라는 대가를 치르면서 교역상대국, 나아가서 세계경제 전체의 경기진

작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취하고 있는 달러貨의 대규모 평가절하는 세계시장의 수요를 미국산 제품으로 이동케 함으로써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미국 국내에서 物價上昇 압력을 부추기고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에 不況을 초래한다는 代價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달러貨의 대목적 平價切下를 통한 국제수지 조정에는 스스로 한계성이 있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여 미국의 경상수지 축소는 반드시 미국의 內需보다 미국의 실질GNP가 빨리 성장할 때 가능하며 이것이 곧 교역상대국의 內需증가율이 그들 나라의 실질GNP 성장률보다 빨리 늘어나야 한다는 사실 위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의 수입수요에 의하여 成長이 주도되고 있는 나라에 대한 미국의 기본적 입장은 미국의 경상수지 축소는 海外的 低成長을 초래케 함으로 미국과의 많은 交易상대국들이 더욱 과감한 內需指向 成長政策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미국이 對美黑字國에 대하여 요망하는 정책조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經常收支 赤字의 축소는 앞으로 상당한 時日이 소요되기 때문에 對美 主要交易國의 內需主導 成長노력도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하며 동시에 成長을 저해하는 구조적 歪曲要因들이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對美黑字國들은 국내수요의 신장을 규제하거나 억압하는 관행, 조치 및 장벽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특히 日本과 서구라파는 강력한 內需擴大政策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시장 개방정책, 限界稅率의 引下들을 적극 실시하여야 될 것이다.

둘째, 경상수지 赤字를 축소하기 위하여 미국 스스로도 국내 內需증가율을 實質GNP 成長率보다 낮게 하는 한편 國民貯蓄率을 國民投資率보다 더욱 높여 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은 歲出削減을 통하여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축소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의 세출삭감은 국내수요 나아가서 GNP의 성장률 자체를 감소시킬 것이지만 海外需要증대가 크게 일어나고 달러貨의 平價切下가 미국의 輸出을 부추기는 時差效果가 발생한다면 재정적자 축소로 인한 미국의 低成長 문제는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논리로부터 미국은 그들의 經常收支赤字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자체의 노력보다 對美黑字國들이 內需指向 成長, 국내시장 개방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강력한 新保護貿易主義를 취하고 있다.

2. 日本經濟의 構造變化

(1) 日本의 經常收支 推移

일본의 무역수지는 제 2 차 석유파동이 마무리된 이후 1981년 이후 달러貨의 강세, 엔貨의 약세경향이 계속되어 흑자幅을 크게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1985년 9월 G5 회동 이후 급격한 엔高現象은 일본의 무역동향이나 구조에 큰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表 2-5> 는 日本의 經常收支 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1985 G5 會同에서 합의된 달러貨의 가치하락과 엔貨의 가치상승은 美·日의 對外收支불균형을 교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1986년에 엔貨강세에 따른 수출가격의 상승, 원유가의 하락 등에 힘입어 통관기준으로 본 무역흑자는 대폭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87년도에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數量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본의 수출은 이미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제품수입의 물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表 2-5> 日本의 經常收支 推移 (단위: 억달러, %)

	71~75 年平均	76~80 年平均	81~86 年平均	83	84	85	86
輸 出	420	999	1,654	1,469	1,701	1,756	2,092
(增加率)	(24.0)	(19.6)	(8.7)	(5.8)	(15.8)	(3.2)	(19.1)
輸 入 ¹⁾	423	976	1,323	1,264	1,365	1,295	1,264
(增加率)	(30.3)	(20.4)	(-1.6)	(-4.2)	(8.0)	(-5.1)	(-2.4)
貿易收支	-26	22	331	205	336	461	828
經常收支	14	23	338	208	350	492	858
(對GNP比率)	(0.2)	(0.3)	(2.5)	(1.8)	(2.8)	(3.7)	(4.4)
對外純資産	70	116	A	373	743	1,298	NA.

註: 1) 通關基準

資料: 日本, 經濟企劃廳, 經濟要覽: 1987

앞으로 미국이 재정적자 삭감을 「그램-루드만-홀링스」법안대로 추진하여 가며, 日本이 內需를 擴大하고 지금까지의 엔貨강세에 의한 수량효과가 「J-커브」 이론에서 보다 훨씬 늦게 나타난다면 일본의 수입은 제품수입을 중심으로 수출의 증가속도를 크게 앞질러 가는 신장세를 나타내어 일본의 貿易黑字規模는 1990년대 초에 걸쳐 상당히 축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예측이 실현되기 위하여서는 선진국가간 정책협조의 테두리안에서 일본이 내수를 擴大하는 한편 市場을 개방하고 元奘한 産業構造 조정의 추진으로 수입확대에 특별한 노력을 경주할 때에 가능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편 일본의 貿易依存度는 1960년 19.8%, 1970년 18.7%를 시현하였으나 제2차 석유 파동 직후인 1980년에는 26%의 피크를 나타내었고 1986년에는 대폭적인 엔貨강세, 유가 급등에 힘입어 수입의존도가 크게 하락되어 전반적인 무역의존도는 17.1%로 줄어들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輸入依存度의 하락은 엔貨강세에 의한 일본 교역조건외 대폭적 개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명목베이스의 貿易依存度 저하가 반드시 實物베이스의 무역의존도 저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日本貿易의 輸出入構造

일본의 수출은 戰災復舊 이후 중화학공업의 지속적 발전을 배경으로 높은 신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주종수출상품도 重化學製品 위주로 변모되었다.

일본의 수출은 1965~86년의 기간 중 연평균 16.5%의 신장률을 보여 세계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5%에서 10%로 倍增하였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重化學의 수출비중은 <表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초반에 60% 수준에서 1973년에 80% 수준으로 육박하고 1986년에는 87.4%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수출을 주도하여왔던 品目은 제1차 석유파동 이전까지는 철강, 선박 및 화학제품이었고 그 이후로는 자동차, 전기, 전자 및 일반기계 등이 총수출의 2/3를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일본의 수출은 1970년대 중반이후 半導體素子, VTR, 電氣回路用品, 家電製品 등이 신장세를 계속하여 자원소비량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은 技術集約製品으로 고도화되어 갔다.

<表2-6> 日本의 輸出商品 構成比 推移

(單位: %)

	1965	1968	1970	1973	1975	1978	1980	1983	1986
食料品	4.1	3.3	3.4	2.3	1.4	1.0	1.2	1.0	0.7
原燃料	1.5	1.0	1.0	1.0	1.1	0.9	1.0	0.8	0.7
輕工業製品	31.9	27.2	22.4	16.5	13.0	11.4	12.2	12.2	10.3
纖維類	18.7	15.2	12.5	8.9	6.7	5.0	4.9	4.5	3.3
非金屬礦物	3.1	2.5	1.9	1.6	1.3	1.4	1.4	1.5	1.1
雜製品	10.0	9.4	8.6	5.9	5.0	5.0	5.9	6.3	5.9
고무製品	1.4	0.7	1.1	0.9	1.3	1.0	1.3	1.2	0.8

	1965	1968	1970	1973	1975	1978	1980	1983	1986
重化學工業製品	62.5	68.5	72.4	79.4	83.2	85.8	84.4	85.0	87.4
化學製品	6.5	6.2	6.4	5.8	7.0	5.2	5.2	4.8	4.5
鐵 銅	15.3	13.2	14.7	14.4	18.3	12.2	11.9	8.7	6.1
非鐵金屬	1.4	1.3	1.3	0.8	1.0	1.0	1.5	1.1	0.7
金屬製品	3.6	3.7	3.7	3.3	3.2	3.2	3.0	2.7	1.9
一般機械	7.4	9.0	10.4	11.4	12.1	14.5	13.9	15.7	18.3
電氣電子	10.2	14.0	14.8	15.2	12.4	16.6	17.5	20.6	17.2
輸送機械	14.7	17.2	17.8	24.8	26.1	28.1	26.5	26.6	28.4
精密機械	2.9	3.4	3.2	3.8	3.3	4.8	4.8	4.8	10.4
合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日本 通産省, 「通商白書」, 各年號

한편 일본의 수입구조는 <表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차 석유파동 이후 원유 및 천연 가스, 석탄 등 광물성 연료와 금속연료, 목재 등 원료품의 수입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80 년대에 들어와서는 원재료 수입비중이 조금씩 낮아지고, 加工製品과 食料品の 수입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식료품, 목제품 등 자원집약적 산업에서 약간의 輸入依存을 보이고 있으나 그 밖의 모든 工業部門에서 自給體制가 구축되어 일본의 工業化 패턴은 총체적 공업화에 의한 完結的 構造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²⁾

<表 2-7> 일본의 輸入商品 構成比 推移

(單位：%)

	1965	1968	1970	1973	1975	1978	1980	1983	1986
食 料 品	17.4	14.5	13.3	15.7	15.2	14.4	10.4	11.8	15.2
魚 貝 類	0.8	1.1	1.4	2.6	2.1	3.8	2.2	3.1	5.1
穀 物	5.8	3.6	2.7	2.5	2.7	3.9	3.1	3.3	-
原 料	33.5	37.5	35.4	32.0	20.2	19.4	17.0	14.4	13.9
纖維原料	10.0	7.3	5.0	5.7	2.6	2.7	1.7	1.6	1.6
金屬原料	12.1	12.7	14.0	10.5	7.6	6.1	6.0	5.2	4.6
木 材	5.8	8.9	8.1	8.9	4.5	5.2	4.9	3.1	3.2
礦物性燃料	19.2	20.6	20.2	21.7	44.3	39.5	49.8	46.6	29.3

2) 朴宇熙, 「韓日經濟關係의 새로운 展開」, 大韓商工會議所, 1983.

	1965	1968	1970	1973	1975	1978	1980	1983	1986
石 炭	3.2	4.0	5.2	3.5	6.0	3.9	3.2	3.9	3.9
石 油	12.4	13.0	11.6	15.7	33.9	29.5	37.5	31.7	15.4
石 油 製 品	3.4	3.2	2.9	1.9	2.4	2.9	3.7	4.5	3.7
重化學工業製品	18.7	22.7	23.8	19.3	13.8	16.8	15.5	8.7	24.1
化 學	4.8	5.3	5.2	4.9	3.6	4.7	4.4	5.7	7.7
機 械 機 器	9.3	10.2	5.3	9.1	7.4	8.2	7.0	18.2	11.6
鐵鋼金屬및同製品	2.1	7.2	6.8	5.4	2.9	3.8	4.1	4.7	4.3
輕工業製品	3.0	4.4	5.4	10.8	6.1	8.4	6.2	6.6	10.7
織 維 製 品	0.7	1.2	1.6	4.5	2.3	3.4	2.3	2.4	4.0
合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日本通産省，「通商白書」，各年度

86 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의 무역구조는 종래의 수직적 加工貿易型으로부터 점차 水平分業化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엔貨강세이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석유파동을 계기로 일본의 산업은 ME 혁명이 주도한 MECHATRONICS에 의한 省力化生産體制, 新素材개발,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의 구축 등으로 전체 조업에서 全天候比較優位를 구축하여 왔으나, 85년 9월 이래 엔高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比較劣位化된 산업에서 수입이 증대하는 것은 물론 절대적 比較優位를 누리고 있는 技術·資本集約財에 있어서도 製品差別化의 진전 및 海外生産의 擴大 등 새로운 국제분업이 일어나고 있다.

(3) 日本의 水平分業 및 海外投資推移

엔高이후 産業內 水平分業의 움직임은 일본의 제품수입비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1986년에는 엔貨강세에 따른 제품수입수량의 증대, 원유가격의 저하 등에 따라 輸入構造에서 工業製品의 수입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앞으로도 勞動集約製品이나 생산기술이 표준화된 재화의 수입은 엔高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엔高이후 일본기업에 의한 海外直接投資 및 海外生産은 크게 증대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금융, 상업,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海外直接投資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었으나 1985년 9월 이후 엔高가 진행되면서 加工組立部門에서도 海外生産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表2-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日本의 제조업의 海外生産比率은 1980년 2.9%, 1984년 4.3%에서 1993년에는 8%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비율은 1983년 현재 美國 제조업의 海外生産比率 17.3%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또한 공산품의 수출/현지

생산의 비율이 미국은 1976 년도에 이미 3 배인 데 반하여 일본은 1982 년도에 29 %에 불과하였다.³⁾

〈表 2-8〉 日本의 海外生産比率 展望

	1980	1984	1993
素 材 部 門	2.5	2.9	3.8
加 工 組 立 部 門	3.8	7.9	16.5
其 他	0.8	0.8	3.3
제 조 업 전 체	2.9	4.3	8.2

註：海外生産比率 = (海外生産額 / 國內産出額) × 100

資料：「世界と日本中長期經濟研究會」

그러나 海外生産의 확대가 수평분업의 진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아시아 NICs, ASEAN 간에 부품, 반제품 등의 수출입을 통한 企業內分業이 진전되는 이외에 美國, EC 등 선진국 사이에도 자동차, 전기 등의 加工部門에서 새로운 相互依存關係가 형성되고 있다.

일본의 海外投資는 80 년대에 있어서도 〈表 2-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배경으로 일본의 長期資本流出이 일어나고 있으나 直接投資보다 證券投資가 보다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막대한 무역흑자를 주로 金利差益을 목적으로 對美證券投資에 집중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表 2-9〉 主要先進國의 海外直接投資 및 證券投資比率 (1983 년 말)

(단위 : 억달러, %)

	日 本	美 國	英 國
直 接 投 資	322(36.5)	2,261.2(72.7)	912.6(52.2)
證 券 投 資	561(63.6)	848.1(27.3)	837.0(47.8)
總 計	883	3,109.3	1,749.8

資料：日本大藏省, 「財政金融統計月報」

美國：Survey of Current Business.

英國：Bank of England, Quarterly Bulletin.

3) 産業經濟研究院, 「日本의 海外直接投資와 企業經營戰略」, 地域情報시리즈 제 23 호, 1986, p. 40. 參照.

일본은 전통적으로 海外生産을 국내생산에 대한 補完關係로 보았다. 해외 직접투자에 의하여 일본내에서 생산 및 고용이 감소되는 것을 극력 회피하여 온 것이 그들의 海外投資戰略이었다.⁴⁾

198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일본의 海外現地法人에 의한 해외생산액은 국내 총생산액의 3%에 불과하였다.

미국의 해외투자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범세계적 이윤추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생산의 감퇴나 고용감소를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하지 않은 반면 일본은 海外投資와 동시에 국내에서는 신규분야 신제품개발을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海外投資가 국내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보완관계를 정립하여 나갔다. 특히 아시아 NICs에 대한 海外投資는 「부메랑」 효과를 우려하여 技術集約業種은 절대 기피하고 있다. 최근 엔高로 인한 海外生産擴大는 원가절감을 위하여, 그리고 하이테크가 배제된 勞動集約 및 技術이 표준화된 제품에서 低賃金의 이점을 얻기 위한방안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결코 본격적 산업의 空洞化현상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1986년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외국인 투자 잔액은 전체의 54.8%로서 15.7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섬유, 의류, 전기, 전자 제품중 勞動集約部門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⁵⁾

3. 中國 經濟改革의 背景과 特性

중국경제개혁의 배경은 중국내부의 정치권력과 經濟政策側面에서 본 대내적 배경과 국제정세의 대외적 배경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1976년까지 중국경제는 文化革命的 와중에서 침체되어 있었고 국민의 불만은 극히 고조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민경제수준을 향상시켜 체제의 정통성을 구축하기 위해서 종래의 中央統制式 計劃經濟에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의 市場原理를 도입하는 경제노선을 추구하게 되었다.

中國 經濟改革의 對內的 배경으로는 다음 두 가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1969년의 中·蘇 국경분쟁으로 안보상의 위협을 느낀 중국이 소련의 무력에 대처하기 위해서 美國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게 되었다.

둘째, 소련, 유고, 헝가리 등 공산국가들이 그들의 체제내에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원리와 이윤제도를 가미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 자본주의 국가들이 획기

4) 産業經濟研究院, 「日本の 海外直接投資와 企業經營戰略」, 地域情報시리즈 제 23호, 1986.

5) 「우리나라 外國人投資現況」, 주간 内外經濟, 제 1326호, 한국은행, 1987. 7.

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게 되자 중국도 경제개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中國의 實用主義노선 추구는 1978 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이러한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 中國의 경제개혁은 본격화되었는데 이는 한마디로 「中國式 社會主義 經濟建設」을 위한 작업이라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치아래 현재 추진중에 있는 中國의 經濟改革의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경제개혁의 성격이 體制內的 同質變化로부터 體制內的 異質變化나 體制外的 異質變化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중전까지의 경제정책은 供給側面에서의 모순, 즉 인센티브의 不在와 計劃經濟의 한계성으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편적이며 미봉책에 불과한 제한적인 인센티브의 부여, 제한적인 分權化의 실시, 제한적인 시장기구의 채택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여 왔었다.

그러나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社會主義의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경제개혁은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공급측면에서의 소비재부족으로 인한 모순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二重性을 갖고 있다. 이와같은 二重的인 모순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社會主義體制 그 자체를 변질시키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資本主義體制가 과잉생산과 과소소비라는 대공황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의 경제적 간섭을 대폭적으로 증대시킴으로써 修正資本主義體制로 변질되었던 것과 같은 현상으로서 서로가 유사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內容面에 있어서는 數條의 社會主義가 과소생산과 과소소비라는 대침체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간섭을 대폭적으로 축소시켜야만 한다는 반대개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중전까지의 經濟改革은 社會主義體制를 유지하기 위한 공급측면에서는 體制內的 同質變化였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혁은 사회주의 그 자체의 변질을 초래시키게 될 공급과 수요 양측면에서의 體制的 또는 體制外的 異質變化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러한 수급 양측면에서의 改革, 즉 體制內外的 同時改革은 사회주의 개발도상국가인 中國式 綜合改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모순의 극복전략이 自力更生 원칙아래 폐쇄적이고 독자적인 對內指向의 방식으로부터 對外協力原則下의 개방적이고 상호보완적인 對外指向의 방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까지 農業部門에 있어서는 人民公社의 설립으로 인한 실패, 즉 대약진에 따른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하여 高級合作社나 初級合作社의 형태로 복귀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왔다. 工業部門에 있어서는 資本不足과 技術革新의 정체로 인한 생산성의 감퇴현상을 연구개발이나 외자도입에 의존하기보다는 文化革命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사상운동을 강조하여 보다 가혹한 노동강도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농업부문에 있어서 自留地의 확대를 통한 自

家農과 生産隊와의 계약에 의한 契約農 등 社會主義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개혁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工業部門에 있어서는 外國資本과 外國技術을 도입하거나 外國과의 合作投資나 直接投資를 장려함으로써 산업시설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中國은 부족한 外貨를 확보하기 위해서 對西方 交易擴大, 즉 資本增大를 통하여 벌어들인 外貨를 재원으로 資本財를 도입하거나 또는 차관으로 도입한 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세째, 中國式 經濟改革은 先進資本主義式 經濟改革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즉 先進資本主義의 經濟改革이 과잉생산하에서의 소비중시경제와 과잉시설하에서의 생산중시경제라는 과잉과 풍족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中國式 經濟改革은 과소시설하에서의 생산중시경제와 과소생산하에서의 소비중시경제라는 과소와 부족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中國에서 짧은 기간에 걸친 工業化과정에서 教條的 社會主義路線에 따른 重工業 우선주의 정책을 강행한 결과 사회주의적 정체라는 공급측면에서의 모순이 유발되었다. 이와같은 공급측면에서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현재까지의 단기간에 걸친 體制內的 同質變化 즉 제한된 인센티브의 부여, 제한적인 분권화의 해방, 제한적인 시장기구의 도입 등은 공급측면의 모순을 해결해 주기보다는 자유스러운 소비생활에의 욕구증대 등 공급측면 모순 이외에 또 다른 수요측 모순을 중첩시켜 놓았다. 다시 말하면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생산을 둔화시키면서 동시에 소비재수요를 증가시키는 사회주의적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연되어 왔다. 즉 인센티브 유인이 주어지고 분권화가 허용되어도 저생산성으로 인하여 정체상태가 지속되며, 소비수요가 증가되어도 공급이 뒤따르지 못해 物價가 계속 상승되는 이른바 과소 낙후시설을 가지고 생산과 소비를 동시 중시해야 하는 모순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경제개혁은 저생산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절대적 빈곤과 이로 인하여 누증되는 불만,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자체의 불안정성 등을 극복해야 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네째, 開途國의 근대화는 전근대적인 요소를 資本主義化하는 것임에 반하여 中國의 現代化는 社會主義的인 요소로 資本主義化하는 것이다.⁶⁾

開途國에 있어서는 ① 土地改革을 통하여 봉건적 농업제도를 「耕者之有田」의 원칙에 따른 自家農制度로 개편하며 ② 手工業의 家內工業을 현대시설로 改替하여 工場制工業으로 격상시키며 ③ 非貨幣經濟部門을 貨幣經濟圈으로 편입시키며 ④ 전반적인 投資유인을 제고시키기 위

6) Stephan Uilgoen, "Economic Systems in World History", pp.236-245.

하여 사회간접자본을 계속 확충시키는 등의 經濟制度의 개선작업을 계속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中國에서는 ① 社會主義的 集團所有制를 원칙으로 하는 人民公社를 개편하여 契約農制度나 協同農制度로 전환하며 ② 重工業投資 우선제도를 농업이나 경공업 또는 사회간접자본 부문 등에 고루 투자하는 포괄적인 국민경제 운영제도로 전환시키고 ③ 社會主義的 企業管理制度와 利潤留保制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는 自主管理制度로 발전시켜 나가며 ④ 경제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혁명적 計劃과 節次를 行政的 計劃과 節次로 계승 발전시키며 ⑤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國營·商店制度로 전환시키고, 計算價格의 기능을 회소가격의 기능으로 전환시켜 나가며 ⑥ 단계적으로 共有概念으로 이행시키는 등의 여러가지 제도개혁작업을 병행시켜 나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國은 半封建·半植民상태에서 教條的 社會主義 路線에 따라 經濟開發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開途 社會主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教條的 社會主義 路線을 그대로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주의 경제의 計劃原理와 자본주의 경제의 시장원리를 결합시킨 混合經濟體制를 선택하였다.⁷⁾ 즉 中國은 중국의 실정에 맞는 社會主義經濟, 다시 말하면 「中國式 社會主義 經濟」라는 독특한 형태의 경제제도를 개발하여 2000年代에는 先進工業國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環太平洋經濟國의 주역이 되겠다는 원대한 計劃下에 經濟改革을 추진하고 있다.

4. 共產圈 經濟의 開放化 趨勢

국제무역에서 先進國의 保護貿易主義가 팽배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수지흑자가 어느정도 정착단계를 맞이하고 있어서 海外投資의 활성화가 요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지역과의 貿易 및 資本·技術協力は 보호무역주의 압력의 회피, 자본 및 기술협력의 다변화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제경제구조의 재편성과정에서 태평양시대의 도래가 예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태평양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관계증진의 일환으로서도 공산권과의 경제교류는 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對共產圈經濟交流는 정부의 北方政策 등으로 최근 그 여건이 더욱 호전되고 있다. 이들의 對外開放은 이들 국가의 경제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 국가의 計劃體制에서는 中央集權의인 經濟管理方式을 그리고 成長전략에서는 重工業 우선의 불균형성장정책을 추구하여 오면서,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경제관리의 집중화를 통한 성장률의 제고 등을 가져올 수 있었다.

7) 李相俊, 「中共經濟論」(서울: 博英社, 1985), p.336.

그러나 70 년대에 들어서면서는 기업의 창의성 저하, 노동생산성 저하, 기술혁신장애, 산업간 불균형의 심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外延的成長 (extensive growth)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단순한 생산요소의 투입 증가에 의한 外延的成長으로부터 경제내부의 효율 향상을 기반으로 한 內包的成長 (intensive growth)으로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경제의 효율 향상, 그중에서도 생산의 최소단위로서의 기업의 활력제고에 경제개혁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들 국가는 모두 경제의 효율성증진을 통한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 관리 시스템, 경제메카니즘의 개선을 주요과제로 삼고 경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경제개혁은 경제의 각 부문에 걸쳐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計劃管理體係의 分權化, 경제적 意思決定의 分權化, 경제메카니즘에서의 價格의 경제조절 기능 도입 등이 주요내용이며, 이 分權化를 軸으로 하는 改革은 中央政府에서 地方政府로, 그리고 다시 個別農家 및 企業으로까지 확산, 적용되어가고 있다. 한편 經濟原理의 관철, 경제효율의 강조는 對外經濟交流에도 적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폐쇄자수적인 自力更生 또는 공산권 域內貿易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대외경제교류에서 경제적 요인이 그 중요성을 보다 더하게 되었다.

어떤 상품, 기술이 충분한 국제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면 이 상품이나 기술을 수입 또는 도입하는 데 政治이데올로기적인 장애가 훨씬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공산권의 對外開放의 양상은 국별로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表2-10>에서 볼 수 있듯이 中國의 경우는 80 년대에 對非共產圈貿易이 총교역의 90 %를 상회하는 활발한 對外開放 확대 추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소·동구의 경우는 對外開放이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對非共產圈교역이 각각 33 %, 25 %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表 2-10> 共產圈의 對非共產圈 交易規模 및 比重

(單位: 億달러, %)

國別		1980		1983		1986	
		總 額	對非共產圈	總 額	對非共產圈	總 額	對非共產圈
中國	金 額	189.3	170.4	237.1	223.5	395.4	362.8
	構成比	100	90.1	100	94.3	100	91.8
蘇 聯	金 額	764.4	350.0	916.5	406.5	970.5	320.5
	構成比	100	45.8	100	44.4	100	33.1
東 歐	金 額	850.0	310.0	947.7	308.1	1,138.2	304.1
	構成比	100	36.5	100	32.6	100	26.8

〈輸 入〉

年度		1980		1983		1986	
		總 額	對非共產圈	總 額	對非共產圈	總 額	對非共產圈
中 國	金 額	193.1	173.6	184.9	168.7	433.8	397.4
	構成比	100	89.9	100	91.3	100	91.6
蘇 聯	金 額	684.7	320.5	804.5	349.6	888.7	294.5
	構成比	100	46.8	100	43.5	100	33.2
東 歐	金 額	912.2	350.9	901.5	253.1	1,124.0	279.8
	構成比	100	38.5	100	28.1	100	24.9

그러나 蘇·東歐諸國의 對外開放은 對內的인 경제改革과 함께 최근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硬貨不足이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하겠으나 合作投資유치 등을 중심으로 계속 非共產圈과의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다.

한편, 최근 공산권 각국의 對外開放政策의 특징적인 흐름의 하나는 外國人直接投資의 적극적인 유치이다. 이것은 合作投資가 공산권 각국이 대체로 공통으로 겪고 있는 外貨不足에 따르는 對外경제교류확대의 制약을 완화해 주면서 선진기술의 흡수, 수출증대 등을 가능케 해주기 때문이다.

三. 美·日·中國의 對韓貿易協力

1. 韓·美·日 三國의 雙務的 貿易收支

우리나라의 高度成長은 기본적으로 수출확대에 의하여 달성되었다.

輸出主導成長은 〈表 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美國과 日本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지나치게 높은 貿易依存度를 시현케 하여 국제경제 동향에 따라 국내경제가 크게 영향을 받은 취약성을 노정시키고 있는 한편, 수출시장과 수입시장도 소수의 특정국에 한정되어 있어 또 하나의 취약구조를 안고 있다.

〈表 3-1〉 韓·美·日 의 貿易依存度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韓國	輸出/GNP	24.4	29.0	32.1	31.5	32.2	35.5	36.2	36.5
	輸入/GNP	35.0	37.0	39.5	35.0	34.5	37.2	37.2	33.2
美國	輸出/GNP	6.8	8.1	7.7	6.7	5.9	5.8	5.3	5.2
	輸入/GNP	6.6	9.4	9.0	8.1	7.9	9.1	9.0	9.2
日本	輸出/GNP	11.2	12.2	13.0	12.8	12.3	13.5	13.2	10.7
	輸入/GNP	11.6	13.3	12.3	12.1	10.7	10.8	9.8	6.5

資料：經濟企劃院, 「主要海外經濟指標」, 1987.

우리나라는 〈表 3-2〉에서와 같이 輸入은 전통적으로 日本에, 수출은 美國에 크게 依存하여 왔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에 대한 美國과 日本의 양극적 輸出入 市場 比重은 미국과 일본의 무역불균형이 심화되면서 한국경제에 대해 심각한 외생적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⁸⁾

특히 1985년 9월 G5회동 이래 엔高·低달러화 현상이 대두되면서 미국과 일본에 대한 지나친 貿易依存度 때문에 우리 경제는 對日輸入에서는 엔高에 의하여 단위당 수입가격이 상승되고, 對美輸出은 원貨의 切上때문에 수출의 채산성이 악화되는 양극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⁹⁾

〈表 3-2〉 韓國의 美·日市場 構成比

	輸 出					輸 入				
	1967 ~ 75 ¹⁾	1976 ~ 83 ¹⁾	1984	1985	1986	1967 ~ 75 ¹⁾	1976 ~ 83 ¹⁾	1984	1985	1986
美 國	42.5	29.9	35.8	35.5	40.0	28.0	22.7	22.4	20.8	20.7
日 本	26.3	18.9	15.7	15.0	15.6	40.2	30.1	24.9	24.3	34.4

註：1) 年平均 占有率을 표시함.

資料：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7.

8) 한국무역의 美·日市場偏重의 경제적效果는, “美·日狭攻에 짓눌린 韓國經濟”, 新東亞, 1986.11. 참조.

9) 엔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效果는, “強勢로 反轉된 엔貨, 그 背景과 우리 經濟에 미치는 影響”, 「投資金融」, 1986.3.

〈表 3-3〉 과 〈表 3-4〉 에서와 같이 貿易收支에서 逆調를 본 美國에 대하여 이룩한 우리나라의 對美黑字가 1985년부터 시현된 經常收支 黑字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면에서 미국으로부터 원貨의 切上압력과 함께 국내시장 개방 요구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表 3-3〉 韓·美·日 三國의 貿易收支 (단위 : 백만달러)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韓 國								
수 출	5,081	17,505	21,254	21,853	24,445	29,245	30,283	34,714
수 입	7,274	22,292	26,131	24,251	26,192	30,631	31,136	31,584
무역수지	-2,193	-4,787	-4,877	-2,398	-1,740	-1,386	-853	3,130
美 國								
수 출	108,112	220,786	233,736	212,276	200,538	217,890	213,310	217,310
수 입	105,880	256,984	276,352	254,884	269,878	341,180	361,630	387,080
무역수지	2,232	-36,198	-39,616	-42,608	-69,340	-123,290	-148,490	-169,770
日 本								
수 출	55,837	129,585	151,759	138,237	146,983	169,775	175,899	209,400
수 입	57,869	141,109	142,668	131,107	126,374	136,073	130,276	127,997
무역수지	-2,032	-11,524	9,091	7,130	20,609	33,702	45,623	81,403

註 :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임.
 資料 : 經濟企劃院, 「主要海外經濟指標」, 1987.

〈表 3-4〉 韓·美·日 雙務間 貿易收支

	1975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한 국 의 對美貿易								
수 출	1,536	4,607	5,661	6,243	8,245	10,479	10,754	13,880
수 입	1,881	4,890	6,050	5,956	6,274	6,876	6,489	6,545
무역수지	-345	-283	-389	287	1,971	3,803	4,265	7,335
한 국 의 對日貿易								
수 출	1,293	3,039	3,503	3,388	3,404	4,602	4,543	5,426
수 입	2,434	5,858	6,374	5,305	6,238	7,640	7,560	10,869
무역수지	-1,141	-2,819	-2,871	-1,917	-2,834	-3,038	-3,017	-5,443
미 국 의 對日貿易								
수 출	11,608	20,806	21,796	20,694	21,789	23,241	22,145	26,667
수 입	11,149	31,216	37,597	37,683	42,844	60,210	65,653	79,788
무역수지	459	-10,410	-15,801	-16,989	-21,005	-36,969	-43,508	-53,121

資料 :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7.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1987.

한편 우리나라는 수출이 증대되고, 국내경기가 호황일수록 對日輸入은 더욱 탄력적으로 증대하는 對日輸入의 硬直性を 지니고 있다.

2. 韓·美間 貿易構造의 性格

韓國의 對美入超로 시작된 한·미간의 무역이 한국의 對美出超를 보이게 된 것은 1976, 77, 78 년의 3개 년이었으며 그뒤 逆調로 반전되었다가 다시 1982년부터 한국의 흑자로 나타나고 있다.¹⁰⁾ 1980年代에 들어와서 한국의 對美輸出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1981~86년 간 연평균 19.7%라는 고율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對美輸入은 연평균 1.4% 증가라는 정체 현상을 보여주었다. 이같은 對美輸入증가의 둔화는 對美輸入의 40%가 수요의 소득탄력도가 낮은 一次商品이라는 점과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안정 및 美國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의 약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수출입 동향에 따라 양국간 무역수지는 1980年代初의 거의 균형 상태에서 한국측의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1986년에는 한국이 日本, 캐나다, 서독, 대만에 이어 第5位の 對美黑字國이 되었다.¹¹⁾

對美輸出商品의 構造를 <表 3-5>에서 보면 196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對美輸出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을 중심으로한 공산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의류와 신발류 및 합판 등이 197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특히 섬유류는 1975년 이후 1985년까지 對美輸出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75년 이후 철강, 기계, 전기, 전자기기 등의 비교적 기술·자본집약적인 제품들의 對美輸出이 점차 증가하여 1986년에는 全體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제품이 그 4.4%로 최고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수출상품의 구조 고도화는 韓國産業의 構造的 變化를 반영한 것이다.

10)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1987.

11) 經濟企劃院, 「88年 主要經濟運用課題」, 1988.

〈表 3-5〉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연도 구분	1975		1980		1985		1986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섬유류		495	32	1,113	24	2,599	24	2,964	21
전자제품		168	11	782	17	2,348	22	3,384	24
신발류		120	8	491	11	1,152	11	1,502	11
철강 및 금속제품		143	9	568	12	1,069	10	1,300	9
자동차		-	-	-	-	64	1	1,109	8
선박류		9	1	79	2	665	6	196	1
완구 및 인형		18	1	116	3	362	3	540	4
합성수지		136	9	134	3	222	2	324	2
피혁제품		18	1	111	2	231	2	252	2
소계		1,108	72	3,394	74	8,712	81	11,571	83
총액		1,536	100	4,607	100	10,754	100	13,880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 각년도

이와 더불어 〈表 3-6〉에서 보면 主要輸出品目的 對美依存度는 완구 및 인형이 1975年 50%에서 1986年 74%로 늘어났고 신발류는 60%에서 71%로, 피혁제품은 56%에서 60%로 각각 늘어났다. 이같이 볼 때 우리나라의 勞動集約輸出品의 對美依存度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자동차 수출의 70%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主要輸出品目的 對美集中현상은 미국경제가 침체국면으로 들어설 때 한국의 수출산업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결과적으로 국내경기바진으로 파급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특정품목의 수출이 美國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곧 수입규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表 3-6〉 한국의 주요수출품목의 대미의존도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연도 구분	1975			1986		
		전체	미국	대미의존도	전체	미국	대미의존도
섬유류		1,810	495	26	8,473	2,964	34
전자제품		348	168	48	6,636	3,384	51
신발류		200	120	60	2,109	1,502	71
철강 및 금속제품		356	143	40	3,834	1,300	34
자동차		-	-	-	1,575	1,109	70

품목	연도 구분	1975			1986		
		전 체	미 국	대미의존도	전 체	미 국	대미의존도
선 박 류		150	9	6	1,812	196	11
완 구 및 인 형		36	18	50	728	540	74
합 성 수 지		223	136	61	945	324	34
피 혁 제 품		32	18	56	419	252	60
소 계		3,155	1,108	35	26,801	11,571	43
총 액		5,081	1,536	30	34,714	13,880	4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 각년도

한국의 對美輸入은 1960年代 初半까지는 전체수입의 50%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1965年 韓·日 國交正常化가 이룩되면서 전체수입의 27.2%였던 對日輸入은 1974年 전체수입의 38.3%까지 늘어났다. 이에 비해 對美수입도 절대규모는 계속 증가, 1973年 12억200만달러로 10억대를 넘어섰고 1983年 대미수입은 67억 7,400만달러로 전체수입의 24%를 차지하여 對日수입 62억 3,800만달러 (23.8%)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앞섰으나 1984년에는 對美수입이 68억 7,500만달러 (22.4%)로 對日수입 76억 3,700만달러 (24.9%)에 비해 다소 뒤졌고, 1986년에는 對美수입은 65억 4,500만달러 (20.7%)로 對日수입 108억 6,900만달러 (34.4%)에 비교하여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對美商品輸入構造를 <表3-7>에서 보면 초기에는 원료·섬유 등 경공업제품의 수입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경제개발계획의 착수로 중화학제품의 수입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냈다. 미국은 공업대국일 뿐만 아니라 원면, 원피, 원유 등 원료와 쌀, 밀, 옥수수 등 곡물에서도 세계최대생산국이자 시장지배국이기 때문에 중화학제품의 수입비중과 함께 이들의 수입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表3-7> 우리 나라의 대미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달러, %)

품목	연도 구분	1975		1980		1986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열 전 자 관		0.1	-	241	5	561	9
원 면		246	13	569	12	172	3
밀		293	16	363	7	264	4
원 피		42	2	109	2	487	7
선 박		8	0.4	-	-	-	-

품목	연도 구분	1975		1980		1986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옥 수 수		63	3	376	8	133	2
철강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78	4	234	5	278	4
석 유 및 역 청 유		7	0.4	-	-	-	-
기 타 기 관 및 원 동 기		-	-	-	-	157	2
종 자 및 과 실		1	0.1	167	3	216	3
소 계		738	39	2,059	42	2,268	35
기 타		1,143	16	2,831	58	4,277	65
총 액		1,881	100	4,890	100	6,545	1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 각년도

3. 韓·日間貿易構造의 性格

1970~85년의 기간 동안 세계 전체의 商品輸出은 연평균 12.5%의 성장을 하였는데 반하여 한국과 일본은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27%와 15.9%씩 성장하였다. 1970~85년의 기간동안 수출입 증가배수를 <表3-8>에서 볼 때 두 나라가 공히 세계연평균을 훨씬 상회하였으며 수입에서도 두 나라는 전세계의 증가배수보다 훨씬 크게 늘어났으나 각기 자국의 수출증가 배수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表 3-8> 韓·日 및 世界輸出入 增加倍數의 對比 (1970~1985)

	輸 出		輸 入	
	全 產 業	工 產 品	全 產 業	工 產 品
韓 國	36.3	40.4	15.7	16.1
日 本	9.1	9.4	6.9	6.5
世 界	5.8	5.8 ¹⁾	6.2	5.8 ¹⁾

註 : 1) 1984年基準

資料 : 韓國貿易協會, 「貿易動向」, 1986.

日本通産省, 「通商白書」

GATT, International Trade

우리나라의 수출입선을 더욱 확장하여 주요 국별·지역별 무역구성비를 <表 3-9>에서 살펴 보면 수출에서 美國, 아세안 등은 변동폭이 적으나 80년대 이후 한국산업의 경쟁력 강화, 3

低い 영향 등으로 對美 수출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日本에 대하여는 1973년 이후 對日 수출의존도가 다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表 3-9〉 韓國의 國別·地域別 貿易構成比 推移

(單位: %)

年 度	輸 出				輸 入			
	美 國	E C	아세안	日 本	美 國	E C	아세안	日 本
1965	35.4	6.9	3.6	25.7	39.3	8.2	3.2	36.1
1968	51.7	4.6	1.8	22.2	30.9	8.3	4.2	42.7
1970	47.3	6.1	1.2	28.3	29.5	8.8	6.1	41.0
1973	31.7	10.7	2.0	38.5	28.3	6.9	7.1	40.7
1975	28.9	14.8	1.8	25.4	25.9	7.4	4.7	33.5
1978	31.9	14.6	2.5	20.7	20.3	9.2	4.9	39.9
1980	26.3	14.5	4.9	17.4	21.9	7.1	5.9	26.3
1983	33.6	12.5	3.6	13.9	24.0	8.2	5.5	23.8
1986	40.0	12.4	2.2	15.6	20.7	10.2	4.6	34.4

資料: 韓國貿易協會, 「貿易動向」, 1980, 1985.

註: EC에서 1965~1980은 9개국 기준, 1983, 1986은 10개국 기준.

1962년에 제 1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한 이후 65년 韓·日 國交正常화가 체결되면서 한·일간의 교역관계는 급속도로 심화되었다. 60년대 초기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외화와 자본재를 일본과의 교류를 통하여 조달하려 했고 당시의 일본경제로서는 중화학공업을 더욱 대형화시키고 그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는 해외시장의 개척과 확대가 필요하여 한·일 국교정상화는 1965년 조속한 타결을 볼 수 있었다.

일본은 자본재 및 원자재 공급에 있어서 지리적 문화적, 애프터서비스 등 여러 측면에서 여타 선진공업국에 비교하여 유리한 입장에 있거나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추진한 대외지향 성장전략이 필요로 하는 수입 수요는 일본으로부터의 자본·기술도입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의 조달은 물론, 중간재의 수입도 거의 일본에 의존하는 對日 偏向型的 貿易依存構造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매우 비탄력적이고 경직적인 것으로 되었으며 이러한 수입수요의 경직성, 비탄력적인 對日貿易逆調의 구조적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對日貿易收支赤字는¹²⁾ 1962년의 85.7백만달러의 적자에서 80년

12)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각년도에 의거 산출.

28.2억달러의 적자로 확대되었으며 86년의 경우엔 54.4억달러로서 86년 우리나라의 총무역수지가 42.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무역역조는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1962~86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 누계액은 386억 달러로 같은 기간 동안의 총무역수지적자 누계액 273억달러를 훨씬 상회하며 특히 80년 이후 대일무역수지적자액이 급증하고 있다. 1987년도에 들어와서 더욱 급격한 엔貨강세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적자액은 86년과 비슷한 수준인 50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외통상정책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공업화의 심화가 일어난 80년도에 접어들어서도 우리나라의 對日輸出構造는 주목할만한 변화가 없다. 우리나라의 對日輸出商品¹³⁾ 중 1970년대까지 주종을 이루던 식료품, 직접소비재, 경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이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70%에 육박하는 主宗品目群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은 아직도 30%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對日總輸出에서 차지하는 경공업제품의 수출비중은 1980년 중 41.5%를 점하였으나 주종수출품목인 의류를 중심으로한 섬유류의 수출비중이 줄어들어 따라 1985년에는 33.1%로 저하되었고 원료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제품의 비중은 1980년의 32.1%에서 85년에는 30.8%로 오히려 하락하였고 품목별로는 철강의 수출비중이 1980년의 9.6%에서 85년에는 10.6%로 소폭 늘어났으나 전기전자, 금속제품 등의 수출비중은 각각 1980년의 8.8%, 2.2%에서 85년에는 8.6%, 1.0%로 오히려 저하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對日依存度를 보면 총체적으로는 1980년의 18.0%에서 85년에는 17.0%로 약간 낮아진 가운데 고율의 對日市場占有品目으로는 어패류를 중심으로한 식료 및 직접소비재와 원연료의 대일수출 의존도가 각각 1980년의 50.7%, 47.7%에서 85년에는 63.4%, 63.9%를 기록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가공제품 중 일본의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우리나라의 주종수출품목인 섬유류와 전기·전자의 對日輸出依存度는 각각 1980년의 17.4%, 13.9%에서 85년에는 13.7%, 10.2%로 오히려 낮아졌으며 철강을 제외한 여타품목의 대일 수출의존도도 대체로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0년대에 접어들어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고도화와 함께 수출상품의 구조고도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나 對日輸入構造는 여전히 資本財輸入 중심으로 경직화되어 있다.

경공업제품의 수입비중은 1980년 13%, 83년 14.7%, 85년 13.3% 등으로 최근 유리 및 도자기 등 비금속 광물제품의 수입비중이 낮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며 약간의 상승징

13) 한국은행, 주간内外經濟, 1266호, 1986. 5.

후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입비중은 80년 79%, 85년에는 82.4%로 우리나라 對日輸入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중화학공업제품중에서도 일반기계와 전기·전자의 對日輸入比重이 80년의 21.3%, 13.5%에서 85년에는 24.1%, 17.9%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높으면서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화학과 철강의 비중이 최근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1985년에는 각각 14.0%, 11.4%를 점하였으며 금속제품, 수송기계, 정밀기계 등의 비중은 늘어난 반면 비철금속의 비중은 약간 낮아졌다. 이와 같이 기계류를 중심으로한 중화학공업 제품이 우리나라의 對日輸入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일수입의 비탄력성, 경직성은 對日貿易逆調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3. 韓·中國間 貿易構造의 特性

산업구조상 한국은 공업중심의 산업구조를, 그리고 중공은 농업부문의 발전을 강조해 오면서 그 결과 농업·광업 등의 1次産品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양국의 산업구조 차이는 韓·中國間 貿易協力の 可能性을 분석하는 기본전제라 할 수 있다. 中國의 輸出構造는 식료품, 공업용원료, 광물연료 등의 1次産品이 全體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년, 85년의 경우 각각 45.6%, 50.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重化學製品, 化學製品, 輕工業製品 등의 工業製品이 全體輸出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년, 85년의 경우 각각 54.4%, 49.3%를 차지하고 있다.

즉 1次産品과 工業製品이 각각 거의 50%씩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次産品中에서는 석탄, 석유 등의 광물연료가 전체수출의 약 1/4 (84년 23.0%, 85년 25.9%)을 차지하고 있으며, 工業製品中에서는 경공업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1/3 (84년 36.0%, 85년 36.0%)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중공의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1차산품이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년, 85년의 경우 각각 18.6%, 12.4%인 데 비하여 공업제품은 각각 81.2%, 87.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공업제품중에서 중공업제품의 수입비중은 84년, 85년에 각각 51.2%, 63.1%에 달하여 매년의 수입액증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공의 무역구조는 1차제품과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제품을 주로 수출하고 자본집약적인 중공업제품을 수입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공 무역구조의 특징은 1984년 이후 自主權을 대목적으로 부여받은 기업들이 이윤을 목표로 기계설비 등의 자본재를 대량으로 구입한 단기적 영향도 있으나 전통적으로 농업을 중시한 經濟政策, 기술의 낙후, 자본부족 등의 산업

구조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공의 국가별 무역거래의 현황을 보면 1984 년도 중공의 수출입총액 497.7 억달러중 일본이 129.9억달러(26.1%)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홍콩 91.6억달러(18.4%), 미국이 60.2억달러(12.1%)인데 반해 소련 및 東歐는 26.4억달러(5.3%)에 불과하여 중공의 대외무역이 자유진영측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1985 년과 1986 년 1~9월 중 상대국별 수출과 수입의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中共의 貿易相對國別 構成比

		計 273.6 億 달러 (4.7%)					소련 3.7	
輸 出 (통관기준)	'85年	홍콩 마카오 27.2	日 本 22.5	美國 8.5	EC 8.2		기 타	
	'86年 1~9월	32.1	16.1	8.6	12.7	4.2		
		計 214 億 달러 (14.8)						
		計 422.6 億 달러 (54.2)					소련 2.4	
輸 入 (통관기준)	'85年	홍콩 마카오 11.6	日 本 35.2	美國 12.2	EC 14.4		기 타	
	'86年 1~9월	12.7	29.6	12.2	16.7			
		計 303.6 億 달러 (5.1)					2.9	

주: () 내는 前年同期比
출처: 「中國海關統計」, 「中國統計月報」

즉 수출은 85 년의 경우 홍콩(마카오 포함)이 27.2%, 일본 22.5%, 미국 8.5%, EC 8.2%, 소련 3.7%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86 년 1~9월 동안에는 홍콩 32.1%, 일본 16.1%, 미국 8.6%, EC 12.7%, 소련 4.2%를 각각 차지해 홍콩과 EC에의 수출비중이 85 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의 경우는 85 년에 일본 35.2%, EC 14.4%, 미국 12.2%, 홍콩 11.6%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86 년 1~9월 동안에는 일본 29.6%, EC 16.7%, 홍콩 12.7%, 미국 12.2%로 對日本수입은 감소하고 있으나 對EC輸入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韓國과 中共間의 무역은 중공의 對北韓政策등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직접거래관계는 아직 형성되고 있지 않으나 홍콩, 日本 등을 통한 간접교역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表 3-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 년의 경우 한국의 對中共수출액이 225백만 홍콩달러, 對中共수입액이 166백만 홍콩달러인 데 비하여 1984 년에는 한국의 對中國수출액이 1,254백만 홍콩달러, 對

〈表 3-10〉 韓·中共의 間接交易 推移 (홍콩 경유)

(單位：100 만 홍콩달러)

年 度 別	中共 → 韓國	韓國 → 中共
1979	-	28.9
1980	165.8	225.2
1981	413.2	811.0
1982	559.0	338.2
1983	839.2	327.3
1984	1,444.7	1,254.1

資料：國土統一院 調査研究室，「中共의 現代化 推進動向과 北韓의 開放政策 展望」

(서울：國土統一院，1985)，p. 198.

中國수입액이 1,445 백만 홍콩달러로 5년동안에 對中國輸入額은 8 배, 對中國수출액은 6 배 가까이 신장되었다.

한편 무역품목을 보면 84 년의 경우 한국의 對中國수출에서는 합성섬유, 직물이 전체수출액 중에서 61.9 %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기기가 13.0 %로 두번째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1985 년에는 칼라 TV, 철강제품의 수출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수출품의 구성비율이 중화학제품쪽으로 크게 전환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對中國수출입품目は 1984 년의 경우 원면, 생사 양모가 對中國輸入額中에서 41.7 %, 직물이 34.0 %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때 對中國輸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무연탄 대신에 섬유관련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韓·中國間의 무역구조 특징은 한국이 中國에 철강제품, 전기·전자제품 등의 중화학제품을 수출하고, 中國으로부터는 식량, 섬유관계원료 등의 一次産品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四. 經濟協力多邊化의 課題와 方案

1. 美國과 日本과의 經濟協力の 姿勢改善

1) 對美·日의 貿易特化의 改善

미국이 전후 가장 큰 폭의 무역적자를 내고 財政赤字 또한 2,000 억달러 수준에서 크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1985-86 년에 걸쳐 43 억달러와 73 억달러의 對美貿易黑

字를 낸 이후 1987년에는 우리나라의 총체적 貿易黑字에 해당하는 100억달러 상당의 對美黑字를 내어 지난 3년동안 對美黑字國 가운데서 가장 빠른 속도의 큰 폭으로 黑字를 내었다.

미국은 지금 그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국제수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결과적으로 세계적 수요를 창출하고 세계의 고용을 증대시켜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對美黑字國들도 적극적 내수지향정책과 국내시장개방을 통하여 일방적 흑자에서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전후 미국의 무역사에서 가장 강도높게 미국이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의 對美貿易黑字가 불과 3년에 걸쳐 본격적으로 일어났지만 이것은 곧바로 韓·美間 통상마찰을 첨예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따라서 미국의 재정과 무역에서 나타난 적자가 단기에 걸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하여 적정수준대의 흑자나 균형을 달성하여 간다는 방향에서 對美貿易政策의 기본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對日資本財 및 部品輸入→國內加工組立→對美輸出特化的 양극적 국제분업구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對日下都給型 産業 및 무역연계구조를 우리의 입장에서 자기 완결적이며 균형된 三國間 무역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특히 對美貿易黑字와 對日貿易赤字를 동시에 축소시키는 가장 건실한 방법으로 對日資本財 및 부품의 輸入代替와 對美輸入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여야 될 것이다.

둘째, 三國間 産業內 分業을 더욱 확대하여 가는 일이다. 1978~86년의 기간동안 韓·美間에는 산업용 일반기계, 사무용 기기, 금속공작기기 등 기계류, 통신녹음기기, 전문과학기기에서 산업내 분업지수가 20내외에서 40~60에 이른 만큼 산업내 분업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으나 韓·日간에는 이들 업종에서 산업내 분업지수가 5내외로 고착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크게 저조한 실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직적 공정분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韓·日간에는 선진국 상호간의 산업내 분업수준인 70에까지 촉진하고 내구소비재 부문에서 製品差別化 분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일이다. 韓·日간에는 이들 업종에서 대규모적인 산업내 분업을 유도하여야 될 것이다. 마침 엔高로 인하여 日本企業 스스로 海外生産을 강구하고 있는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對美輸出은 섬유, 신발, 완구 등 가격탄력성이 높은 상품들이 아직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품질경쟁력보다는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며 채산성이 낮더라도 輸出物量을 확대하여 왔다. 그 결과 미국으로부터 物量規制와 反덤핑관세 부과에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품목에서 물량위주의 집중수출을 지양하고 수출상품의 고급화로 채산성 위주의 多品種 少量輸出方式으로 수출전략을 바꾸는 한편 이들 업제에 의한 對美輸出物量의 자율조정

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2) 韓·美間 技術·貿易의 連繫

韓·美·日 3 국가간 무역수지 불균형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對美輸入 확대는 절실한 과제이다. 앞으로 對日輸入을 對美輸入으로 전환하는 한편 對美貿易不均衡의 문제는 對美수입의 증대를 통한 韓·美間 확대무역균형기조아래 그 해결책을 다음의 방향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技術移轉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술이 體化된 기계류, 화학 및 정밀과학설비, 실험기기들의 의도적 수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부설연구소, 公共 R/D 연구기관, 대학의 기초과학실험실에서 소요되는 각종 정밀실험 기자재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對美黑字의 축소와 국내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일본과 비교할 때 원천기술의 종류가 더욱 많고 상용화의 잠재성이 높은 기술을 획득하며 실험단계에 있는 미국의 각종 기술체계에 대한 근접도를 고양하기 위하여 韓·美間의 産業技術의 共同開發推進, R/D活動의 미국내 진출 등에 우리의 對美黑字를 과감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기술력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대미무역을 균형으로 접근시킬 수 있는 一石二鳥의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知的所有權保護와 物質特許 등 서비스부문의 개방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對美貿易黑字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韓國과 美國이 日本에 대하여 입고 있는 구조적 貿易赤字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中國의 經濟開放에 대비하여 미국의 기술과 한국의 기능인력이 合作하는 韓·美間 기술 및 생산의 연합체제구축을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될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對日資本財와 部品の 수입대체로 연결되어야 한다. 특히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업종에서 韓·美間 합의적 형태의 분업을 통한 기존기술의 개량, 신기술, 신제품개발로써 과다한 對日輸入特化品目에서 對日比較優位를 공동으로 개선하여 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韓·日間 水平分業의 擴大

우리는 1962년 이래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본재와 중간재의 높은 對日輸入依存도와 對日輸入構造의 비탄력성, 경직성 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엔화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입대체를 촉진하지 못하여 오히려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단기간내에 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엔고가 진행된 이후 韓·日間 산업내 분업추세와 일본의 산업구조개편방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對日貿易逆調改善을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¹⁴⁾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엔」高에 의하여 일본산업이 고도의 첨단기술산업과 정보 및 「서비스」산업 등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발생될지도 모르는 가공부문의 空洞化현상에 대비하여 우리의 장기적인 産業政策으로 이것을 수입대체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서 우리의 對日比較優位産業化하는 전략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엔」高로 인한 일본의 산업개편이 일어날 현시점이 우리에게서는 대일무역수지역조에 대한 구조적 개선의 적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단기적으로 일본의 産業再編成기조는 특정산업을 전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自己完結의 性格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韓·日間 산업내 분업이 일어났던 업종에서 分業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기계류 등 기술 및 자본집약제품에 있어서도 산업내분업을 촉진하는 것이다. 산업간분업은 일본으로 하여금 산업조정에서 훨씬 높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韓·日間 새로운 分業체제는 산업내분업체제로 지향되어야 한다. 최근의 「엔」貨 강세를 계기로 일본이 아시아 NICs로부터 부품수입을 확대하거나 이 지역에 생산거점을 마련하여 현지생산을 통해 생산된 부품 및 제품을 역수입하는 새로운 국제분업전략을 부분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산업내분업은 앞으로 더욱 촉진되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본으로 하여금 일본의 海外生産을 통한 경비절약 전략에 한국이 最適協力파트너라는 인식이 들어가도록 우리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R/D투자를 적극 확대하여야 될 것이다.

2. 韓·中國間 經濟協力の 展望과 課題¹⁵⁾

한국이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 협력을 아룩해 나가는 데에는 정치·외교·문화 등 비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의 방안으로서만 무역 협력, 기술협력 그리고 직접투자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韓·中國間 貿易協力 方案

첫째, 국제적 분업이라는 측면에서의 방안을 들 수 있다.

국가간의 무역구조는 쌍방간의 산업구조면에서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때, 한·중국간의 무역상 보완방안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압축하여 제시할 수 있겠다. 즉 ① 한국의 공업과 중국의 농업 및 광업과의 산업간 수직적 분업관계, ② 한국의 자본 및 기술집약적 제품과 중

14) 安忠榮, “강세로 反轉된 엔貨,” 그 배경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投資金融」, 1986.

15) 大韓商工會議所, 한국경제연구원, 「韓·中共 經濟協力の 可能性 分析」, 1987.12.

국의 노동집약적 제품간의 산업내 수평적 분업관계, ③ 한국의 加工型工業과 중국의 素材型工業間的 加工度에 따른 수평적 분업관계를 기초로 한 무역의 증대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국진출의 직·간접 접근방법에 따른 방안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국진출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곧바로 직접교역으로 발전할 수는 없는 일로서 우선은 간접교역을 다양화시키며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민간상호간의 직접수송→민간상호간의 직접교역→민간무역협정체결→정부간 무역협정체결 등 단계적이면서도 중국식의 「漫漫式」으로 접근해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우선 間接貿易 확대방안으로서는 ① 홍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개무역의 적극적인 활용, ② 홍콩 등지에 현지법인의 설립, ③ 정부가 갖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정보의 폭넓은 개방, ④ 중국내의 경제전문가 및 기관과의 접촉 모색, ⑤ 국내기업체들간의 과당 경쟁방지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그리고 直接交易 추진방안으로서는 ① 우선 간접교역량의 대폭 확대, ② 중국과 직교역을 하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자본을 투입, 중국에 합작회사 설립, ③ 중국의 홍콩 주재 무역거래소와 접촉, ④ 민간무역협정의 체결 추진, ⑤ EC와 같은 동북아 경제협력기구 창설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직접교역을 간접교역으로 유도하려면 무엇보다 간접교역의 양을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과 美國·日本 등 국가간의 교역상황을 현재 진행중인 것은 물론, 앞으로 전개될 것도 치밀하게 파악하여 이들의 채널에 우리가 다각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직접교역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홍콩 등지에 한국이 자본을 투입, 중국의 제품가공회사 (예를 들면, 중국산 絹織物 加工會社 등) 같은 것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다.

최근 중국이 대외무역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홍콩에 설립한 貿易去來所와 우리의 중국관계 전문가들을 접촉시켜 이를 대중국 경제협력과 직접교역의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민간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것은 이념이나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 사이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정치, 외교적인 문제를 크게 완화해주는 利點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대중국 업무의 정부독점을 지양하고 기업이나 경제단체의 대표를 내세워 중국에 있어서의 민간대표 성격의 기구체인 國際貿易促進委員會와의 접촉을 시도해 볼 만하다. 뿐만 아니라 양국의 은행간 거래 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유럽의 EC와 같은 형태의 기구로서 동북아시아의 多邊的(multilateral)인 경제협력기구를 창설하는 방법도 있겠다.

세째, 有望交易品目を 輸出·入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으로 수출이 유망한

품목을 장·단기적으로 나누어보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이 높고 중국의 수요가 큰 품목인 섬유사·인조섬유직물·철강제품·공작기계 및 공구류, TV 등 전자부품, 차량 부품 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현대화 추진에 필요한 부품류로서 반도체·컴퓨터·통신기기·트랙터 등 기계부품류, 건축자재·선박자재·가전제품의 부품, 특수강 및 합금강류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유망품목은 모피·원면·무연탄·원유 등 천연자원과 콩 등 농산물, 유기 및 무기화학물, 섬유직물류 등 중국이 이미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품목들을 들 수 있다.

네째, 서해안지역개발의 적극 추진을 들 수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의지를 상징적으로 제도화한 經濟特區 및 經濟開放區 설정에 호응하여 우리나라도 서해안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한국을 겨냥한 중국의 호의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한·중국간의 직교역시대를 대비하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다.

2) 韓·中國間 技術人力 方案

우리나라는 중진국의 선두주자로서 후진국에서의 기술도입에 알맞는 기술형태인 중간기술(intermediate technology) 즉, 적정기술을 가지고 있고, 노동력이 풍부하고 자본이 부족하다는 要素賦存度의 측면과 역사와 전통 등 문화적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技術移轉은 斜陽化된 국내산업의 기술을 요소부존도가 유리한 중국에 이전함으로써 이익을 도모할 수 있고, 아울러 기술이전이야말로 수출이나 직접투자에 비해 물적·인적교류도 없이 경제협력이 가능한 훌륭한 대중국 진출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양국간 기술협력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정부차원에서의 정책방안, 기술이전이 가능한 품목, 기술협력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 등으로 나누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양국간 정부차원에서의 과학기술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양국간 접촉이 가능한 과학기술관계 국제회의를 매개로 하여 「韓·中國 技術協力國際會議」의 개최를 적극 추진하고, 양국간에 科學技術協力調查團을 파견하여 기술협력의 기반을 조성한다.

둘째, 중국에 기술이전이 가능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동안 많은 기술이 축적되어 있고 품질경쟁력이 뛰어난 의류·신발류·봉제완구류·피혁제품 등 경공업제품 관련 기술과 1980 년대에 들어와서 비약적으로 기술이 축적되고 있는 전자제품, 기계제품, 화학제품, 금속제품 등의 중화학 관련 기술이 대중국 기술이전에 유망한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 양국간 기술협력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양국가간의 관계진전의 단계로 보아 아직은 조금 이른 방안이지만 장기적으로 보아 기술협력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들은 ① 플랜트수출, ② 첨단산업 등 하이테크부문의 기술이전, ③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의 참여, ④ 에너지자원 개발에의 참여, ⑤ 중국기술자들의 국내초청 훈련 등이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의 인력·기술·자본 등 인력은 풍부하지만 기술과 자본이 부족하므로, 우리의 축적된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플랜트 수출이 유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8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은 特許法, 商標法 등을 제정하여 對外技術導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도 한국기업의 對中國 기술이전의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3) 韓·中國間 直接投資 方案

직접투자는 해외시장에의 진출 및 개입의 효과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서, 현단계에서 한·중국간 관계로서는 다소 時期尙早인 면은 있으나 중국의 노동력 자원과 한국의 기술·개발경험·자본 등이 결합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경제적인 직접투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은 1977년까지는 외자도입을 배제하여 오다가 1979년 中外合資經營企業法 제정을 시작으로 외자도입 체계를 갖추고 외국의 선진기술과 자본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기본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自力更生을 원칙으로 하고 외자도입은 보조수단으로 이용한다.

둘째, 호혜평등의 원칙아래 양국간 권익을 확보한다.

셋째, 투자에 따른 경제효과를 중시하고 합리적 이윤확보를 보장한다.

넷째, 에너지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 基幹産業育成, 기술개발 등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와 같은 기본정책하에 중국은 관련된 모든 法規를 제정하고,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1980년부터 深圳, 珠海, 汕頭, 廈門 등 4개 市를 경제특구로, 上海, 天津 등 연안지역을 경제개방구로 지정하여 여기에 직접 투자 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계 우대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기업의 직접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우리의 對中國 直接投資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진출가능성이 높은 소규모의 투자부터 시작하되, 투자여건이 조성된 경제특구 및 경제개방구에 진출한 후 단계적으로 내륙지방까지 침투해야 한다.

둘째, 투자진출부문을 단기적으로는 섬유류·가방·피혁·전자 등 경공업분야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자원 개발·수송·전기·통신·석유화학 등 사회간접부문으로 진출해야 한다.

세째, 앞으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 우리나라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홍콩 진출을 확대해야 하며, 연구기관·기업체 등 민간부문간의 기술 및 투자정보의 교환이 바람직하다. 네째, 해외거주 화교, 美·日 등 선진국 또는 홍콩의 현지법인 등과의 합작법인 투자와 아울러 독자적인 직접투자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東歐國社會主義諸國과의 經濟協力

80년대의 中國과 소련은 적극적인 改革과 開放政策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東歐諸國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共產圈 각국의 對外開放은 그들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그들의 開放政策은 內需市場의 開放을 전제로 한 국제경제 질서에서의 편입과는 그 내용이 다르다.

공산권 諸國의 對外開放은 그 목적이 現代化의 추진 또는 경제의 활성화를 資本財 및 技術導入에 필요한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확대, 선진기술의 학습 등에 있다. 물론 合作投資 등 外貨유치를 위해 부분적으로 內需市場을 열어놓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分野를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국내생산이 되더라도 그 품질, 성능 등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 中長期輸入計劃에 포함되어 있는 것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놓고 있다. 한편 공산권 국가가 體制의 相異에서 오는 서방세계와는 다른 商慣行, 合作投資를 유치하고 있지만 복잡한 인가절차와 사회간접자본설비부족, 지속적인 관련 法規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불충분한 法制的 환경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더구나 體制의 경직성으로부터 연유되는 낮은 경쟁력 역시 한 국가의 거래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마디로 東歐가 뚜렷한 경쟁품목은 갖지 못하고 있다는 약점은 거래 대상국의 범위를 좁히고 국제수지 악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또 공산권 국가들의 개혁, 대외개방 추진의 역사가 그다지 오래지 않아 각종 政策이나 規定들이 이를 지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실행은 아직 어렵다는 점에서도 이들 국가의 경제교류 추진에서 유념해야 할 점이다.

한국은 공산권과의 경제교류추진에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 금년 들어서면서 무역사무소 개설의 형태로 조그마한 결실을 맺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그동안의 간접교역 일변도에서 직접경제교류추진을 위한 통로가 뚫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적인 경제교류를 맺는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완전한 직접경제교류를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고, 이를 구체화하는 데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산권 국가와는 未修交 상태인 만큼 직접경제교류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

고 民間베이스의 무역사무소개설 등 民間主導의 經濟關係를 꾸준히 모색하면서, 이들 市場에 대한 사전 조사연구를 철저히 해두어야 한다. 이러한 대비에는 이들 국가를 단순한 市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 제도, 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심화는 단순한 상품거래 뿐만 아니라 合作投資, 技術이전 등 좀더 넓은 의미의 경제협력력을 추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산권 국가에 이미 진출하고 있는 서방 기업들의 경험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정치·외교적인 고려가 우선되던 시기는 이미 지났으며, 장기적 실리라는 차원에서 공산권국가와의 거래는 民間主導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여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 제도 및 법령 등의 측면에서 개선을 마련하는 데 그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더구나 공산권 국가의 政治, 經濟 및 文化를 비롯한 폭넓고 심층 있는 지역 연구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五. 結 論

자원이 빈곤하여 수출지향적 경제성장을 계속 추구해 온 한국경제는 최근에 서구선진국들의 강력한 보호무역정책과 자원민족주의 대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우기 우리의 海外依存度가 대부분 미국과 일본에 편중되어 있어 우리나라 경제활동이 이들 兩國의 경제와 정치상황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 왔다.

한편 國際收支面에서 미국과는 흑자관계를 유지하나, 일본과는 무역역조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海外市場의 多邊化를 새롭게 추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축소시킴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나가면서 막대한 시장잠재력과 자원공급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경제협력 파트너로 등장하고 있는 中國, 소련 및 東歐圈社會主義諸國과의 경제협력방안을 기하자는 것이 本 研究 목적이었다.

먼저 美·日 경제의 위상변화와 함께 앞으로 엔貨에 대한 달러화의 安定化조짐과 미국으로부터의 원화절상압력 및 국내시장개방 등으로 표출되는 통상마찰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對美輸出特化와 對日輸入特化에서 야기되는 양극적 무역불균형을 동시에 축소하고자 당사국간에 이해와 협력을 구하여야 한다. 특히 경직적이고 고율의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對日資本財의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미간에는 이미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 資本財부문에서 產業內貿易을 합목적 分業형태로 적극적으로 심화하여 일본의 內

需指向成長에 맞추어 對日수출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둘째, 韓·日간에는 資本財부문에서 산업내 분업이 지극히 저위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적어도 中級技術部門에서라도 산업내 분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산현장기술을 발전시켜가야 할 것이다.

세째, 對美黑字를 축소하는 통상협력 방안으로 기술이 體化된 기계류, 정밀과학설비, 자재 등에서 수입을 대폭적으로 늘려 중소기업의 생산현장기술, 대기업에 첨단기술, 대학에서 기초 과학 연구기반의 확충에 활용한다.

네째, 美·日무역편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中國, 아세안 등 제3 세계와 東歐圈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新市場개척노력에 적극적인 지원체제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韓·中國간의 經濟協力の 구체적 방안을 무역, 기술이전, 直接投資 등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무역협력의 방향은 ① 한국의 공업제품과 中國의 一次商品과의 교환, ② 한국의 자본 및 기술집약적 제품과 中國의 노동집약적 제품간의 산업내 수평적 분업관계를 기초로 한 무역 확대, ③ 한국의 가공형공업과 中國의 素材型工業間的 加工度에 따른 水平的分業관계를 기초로 한 무역의 확대.

둘째, 한국의 개발된 기술은 후진국의 技術賦存度나 要素賦存度에 적합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기술의 비경제성의 한계를 극복해 주는 中間技術로서의 우위성을 가지고 수출할 수 있다.

세째, 최근에 와서 對中國 직접투자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특히 中國측의 풍부한 노동력, 공업원료, 천연자원 등의 생산요소와 결합하는 韓·中國간의 직접투자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직접투자는 이윤기회가 큰 반면에 현지국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위험성도 있는 경제협력 방법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선행하여 상당한 정도의 여건조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3국과의 共同投資方式으로 시작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이밖에도 東歐圈 社會主義국가들의 經濟改革과 對外開放化 추세가 최근 헝가리·유고의 무역사무소개설, 中國 小東省과 상호무역사무소개설·합의 등으로 현실화됨에 따라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들 국가를 단순한 시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경제·사회 및 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의 심화는 단순한 상품거래뿐만 아니라 合作投資 技術移轉 등 좀더 넓은 의미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와 같이 정치·외교적인 고려가 우선되던 시기는 이미 지났으며, 장기적 실리라는 차원에서 동구권제국과의 거래는 民間主導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여건의 변화

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 제도 및 관제법령 등의 측면에서 개선을 마련하는 데 그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 Summary >

Mult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Korean Economy

Ko, Nam-Uook

This study aims to examine, synthesize and regulate the multilateral plan of economic cooperations discussed until now from more than one angle, actively coping with changes of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circumstances.

First: In order to decrease trade imbalance raised by the complete dependence not only of exports upon the United States but also of imports upon Japan, our economic policy seek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from the country concerned.

Second: Korean capital goods stand lower in industrial division of labor than Japanese ones, so Korean manufacturing technique should be developed enough to increase industrial division of labor into the medial level in technical knowledge.

Third: As a commercial cooperation plan to decrease the black-ink balance with the United States, our economy policy should increase the imports of the embodied technique, exact scientific facilities, and good materials from the United States.

Fourth: To be freed from the complete dependence of trade upon Japan, our economy policy should actively develop overseas markets through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Third World like China, Asian nations, and the East European bloc.

Fifth: The concrete economic cooperation plan between Korea and China should be deeply examined from the viewpoints of trade, the transference of technique, and direct investment. Besides, our economic cooperation plan should be diversely made, to cope with the tendency that socialist states of the East European bloc are going to carry out a new economic reform.

From long-range and practical point of view, business relations with the East European bloc should be conducted by non-official civilians, while the government should lay much emphasis upon improving the present economic systems and regulation concerned in flank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nges of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circumstances.